

김한길 “‘통일대박론’은 환상… 흡수통일 반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남용방지 등 ‘혁신 2탄’

자치입법권 확대·국가사무 이양·자치경찰제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부정부래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동참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종인 불출석 등에 대한 저별규정 강화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연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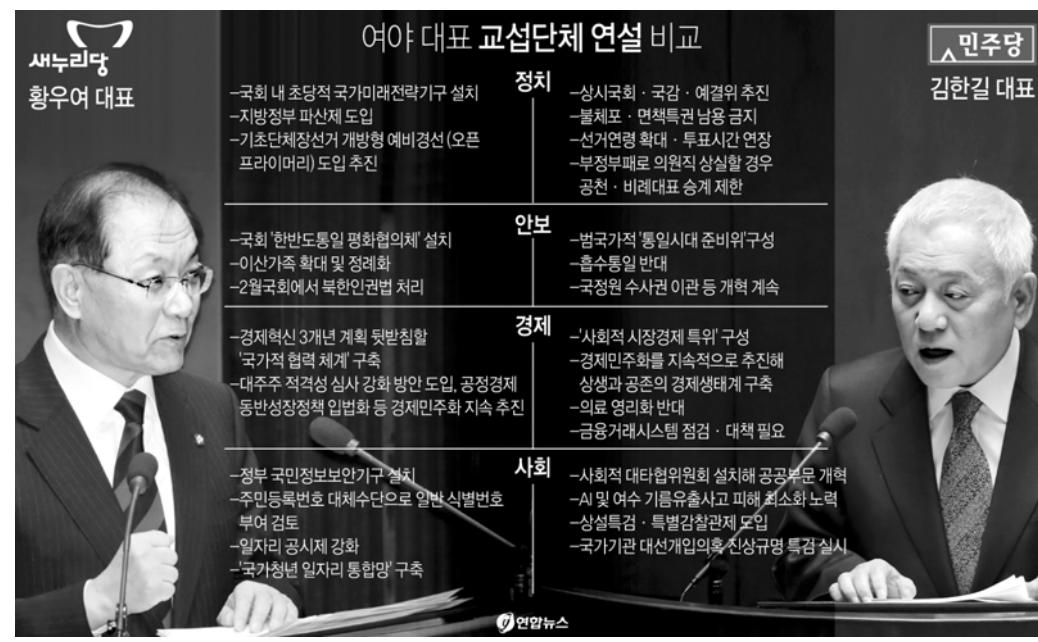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와 관련,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당장은 그 권리가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의 정치혁신안 발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계획 밟표를 계기로 정치혁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은 2탄으로 정치제도 개선 애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오는 11일 ‘새정치플랜’을 발



표하는 안 의원보다 선제적으로 혁신안을 내놓음으로써 정치혁신 및 새정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차지압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종액 인건비 내에서 차지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에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로 오해받기 쉽다”며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마련을 위한 조단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 구성을 제안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며 “모든 경로 당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지방선거 야권연대는 미봉책 혁신으로 당당히 이겨야”

손학규 미국 특강 마치고 귀국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5일 6·4 지방 선거 야권 연대론에 대해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미봉책으로 선거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특강 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손 고문은 취재진과 만나 “혁신을 통해 이긴다는 당당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안철수 현상”은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반영한다”면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도주문했다.



손 고문은 7월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재·보궐 선거는 현재 관심밖”이라며 일단 가능성은 닫았다.

손 고문은 당분간 미국 특강에서 피력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보완해 공론화 작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달 중·하순께에는 이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이들 미국 출국 전 재단 신년 대토론회에서 주장한 권역구조 및 정치 제도 개편의 공론화를 위한 후속 작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민주 구주류·486인사 주도 ‘혁신블록’ 내주중 출범키로

강기정·최재성 의원도

‘혁신모임’ 발족 준비

민주당의 구주류·486(4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이 ‘혁신블록’이란 모임을 만들기로 하고 내주 중 출범키로 했다.

민주당 내 20명 인팎의 초·재선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내주 ‘혁신모임’(기정)을 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임은 김기식·박근근·은수미·진성준·진선미 의원 등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 출신 및 486 초선 그룹이 주도했으며 우상호·이인영·이목희·김현미 의원 등 일부 재선들도 합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 2014. 3. 3(월) 초급야간 18:30
중급야간 18:30
- 모집기간 : 2014. 1. 23.(목)~3. 8.(토)
- 수업기간 : 2014. 3. 7.(금)~2014. 8.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 수강료 : ₩360,000(매급주·광주교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전통화 한문지도사 자격증득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장 및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연수기회 부여

- 원서부과 및 접수처(토.일.공휴일 휴무)

전 회 (062)530-7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0-8712-1378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안철수 “전북부터 ‘묻지마투표’ 종식해야”

새정주 신당 설명회…“국익·민생 아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협력은 마땅하지 않겠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창당 실무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주)의 신당 설명회가 전주를 방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수십년 정치구도를 혁파하고 한국 정치 전체의 재편이 새정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연장이 되도록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지역이 민주당 빅발임을 겨냥한 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부터 문지마 투표를 종식해야 한다. 새정치 세력이 출연해서 기득권세력이 외면하는 새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기득권세력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진영대결로 물어가 둘지마 투표를 기대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전북지역의 ‘정치적 터줏



대감’ 이었던 민주당을 비판한 뒤 “그런 선거라면 누가 당선이 되던 허언정치, 무분별한 폭언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정치 세력이 출연해서 기득권세력이 외면하는 새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지역이 민주당 빅발임을 겨냥한 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부터 문지마 투표를 종식해야 한다. 새정치 세력이 전북의 시대정신”이라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옛노래가 아니라 희망을 불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광주가 아시아의 아픔 보듬는 허브 역할해야”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5일 “광주가 아시아의 아픔을 보듬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정신건강트리우마센터를 방문해 강용주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국가권력으로부터 상처입은 거창, 제주 양민을 비롯해 아시아의 아픔까지 보듬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아시아 곳곳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심신이 다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블로델이다”고 밝혔다.



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를 끌어안는 것이 집단자유이고 이것이 광주정신을 되살리고 세계화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황식 서울시장 출마 굳힌 듯

“새누리 당 지도부 조만간 만날 것”

오늘 전남대병원서 특강

실 것 같다”며 “김 전 총리가 이달에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니 그 전에 한번 뵙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동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설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 “주식 백지신태가 출마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출마를) 하는데 무슨 제도적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6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전남대병원이 매달 개최하는 명사초청 특강에 강사로 초대된 김 전 총리는 이날 병원 6동 7층 백년홀에서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할 예정이다. 장성 출신인 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자신의 통일관과 함께 종교·종교의 일화 등을 지역민에게 들려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에 서 예를 갖춰서 요청하면 (김 전 총리가) 오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